

경제위기와 저출산*

이성용**

본 연구의 목적은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각 출산순위별 출산 행위가 어떻게 변화하였고, 또 그러한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기본 가정은 외환위기의 사회경제적 변동은 결혼 및 출산과 같은 개인적인 행위와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개인은 다른 방식으로 출산 행위를 행할 것이고 그러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 또한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가정은 본 연구의 분석에서 입증되었다.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우리나라의 출산행위는 변하였다. 외환위기 이후에 결혼한 여성은 그 이전에 결혼한 여성에 비해 첫째아 출산을 덜 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둘째아와 셋째아 출산에서는 첫째아 출산과 달리, 외환위기 이후에 이전 아이를 출산한 여성이 그 이전에 출산한 여성보다 둘째아(혹은 셋째아)를 더 빠른 기간에 출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즉 출산의 사각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다변량 분석에서도 나타난다. 둘째아와 셋째아 출산에서 이른 나이에 혼인한 여성이 만혼의 여성보다 더 빨리 출산을 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출산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변하였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첫출산에서 남편 안정 직업이 긍정적인 영향을 여성의 안정 직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남편의 긍정적 영향이 부인의 부정적 영향보다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견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성 취업 우호적인 출산장려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핵심단어: 초저출산, 외환위기, 출산의 사각화

I.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90년대 약 1.5-1.7에 머물렀지만, 외환위기 직후 1998년 1.5미만으로 떨어졌고, 그 후 계속 저하하여 2005년 1.08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있다. 이러한 초저출산이 영구 현상인지 혹은 일시 현상인지에

* 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감사를 드린다.

** 강남대학교 교양교수부 조교수

대한 논쟁이 있지만(최경수, 2004; Bongaarts and Feeney, 1998; Kohler, 2001; Kohler et al., 2002; Billari et al., 2002),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시 현상보다 영구 현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김태현·이삼식·김동희, 2005).

인구학적 측면에서 이러한 초저출산은 1997년 말 외환위기란 급격한 경제적 환경의 변동으로 야기된 여성의 초혼연령 상승과 출산간격의 변동으로 상당 부분 설명될 수 있다(은기수, 2001; 김승권, 2004; 전광희, 2006). 여성의 초혼연령은 20세기 들어 계속 증가되어 왔지만, 외환위기 직후 그 증가폭이 더 커졌다. 1990년대 이후를 볼 때, 외환위기가 일어난 1997년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25.7세로 1990년 24.8세에 비해 7년 동안 0.9세가 증가된 반면, 외환위기가 발생한지 7년이 지난 2004년에는 27.5세로 약 2세가 증가되었다. 외환위기를 전후 7년을 비교할 때, 외환위기 이후 평균초혼연령의 증가폭은 그 이전에 비해 2배가 넘는다.

초혼연령의 상승은 첫째아 출생 모의 평균연령을 끌어올렸다. 첫째아 출생 모의 평균연령은 1997년 26.7세에서 2004년 28.9세로 약 2.2세가 증가하였다. 둘째아와 셋째아 출산 평균연령도 증가하였는데, 둘째아는 1997년 29.1세에서 2004년 30.8세로 셋째아는 31.7세에서 33.1세로 상승되었다. 혼인연령이 상승한 결과 2004년에는 1997년 첫째아를 낳을 연령에 결혼을 하고, 둘째아를 낳을 연령에 첫째아를 낳고, 셋째아를 낳을 연령에 둘째아를 낳는 현상이 나타났다. 출산 간격도 변화하였다. 다음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혼인에서 첫째아를 출산하는데 소요된 기간이 1985년 1.42년에서 1995년에 1.56년, 2000년 1.68년, 2002년 1.77년으로 증가되었다. 첫째아에서 둘째아까지의 소요 기간도 1985년 3.51년에서 1995년에 3.74년, 2000년 3.89년, 2002년 3.99년으로 점점 증가되었다. 반면 셋째아와 넷째아를 출산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1995년을 정점으로 하여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김태현·이삼식·김동희, 2005).

<표 1> 출생순위별 출산간격 추이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첫째아	1.42	1.44	1.56	1.68	1.72	1.77
둘째아	3.51	3.74	3.87	3.89	3.93	3.99
셋째아	5.32	5.42	5.55	5.41	5.41	5.37
넷째아	5.82	5.77	5.80	5.59	5.61	5.54

자료: 김태현·이삼식·김동희(2005:83)

앞의 <표 1>의 2002년도 출산간격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여성이 평균적으로 몇 세에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그리고 넷째아를 낳는지를 계산해 보자. 평균 결혼연령인 27.3세에 결혼하여 1.77년 뒤인 29.07세에 첫째아를 낳고, 그로부터 3.93년 후인 33.06세에 둘째아, 둘째아 출산 후 5.41년 후인 38.43세에 셋째아, 그리고 셋째아 출산 후 5.54년 후인 44.0세에 넷째아를 낳는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2004년 자녀 순위별 모의 평균 연령들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이런 사실은 <표 1>의 출생순위별 출산간격과는 다른 방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과 출산 간격의 변화를 재분석해볼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한다.

출산과 결혼은 분명 가족 삶의 전략의 일부이다. 출산과 결혼은 얼핏 보면, 개인적인 행위같이 보이지만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회적 행위이다(Bongaarts and Waktins, 1996). 따라서 외환위기와 같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동은 외환위기 이전에 지니고 있었던 개인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과 행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출산행태를 비교하여 출산행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분석한 경험적 연구가 부재하다.

본 연구는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각 출산순위별 출산 행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따라서 먼저 결혼과 출산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적 변동—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과 청년실업—을 고찰할 것이다. 그런 다음,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첫째아, 둘째아, 그리고 셋째아에 대한 Kaplan-Meier 생존함수 분석 및 위험함수 분석을 행할 것이다. 이들 함수들을 통해 각 출산순위별 출산행태가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다변량 분석을 행할 것이다.

II.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변동

초혼연령의 상승이나 출산간격의 변동과 같은 개인적 행위는 사회경제적 변동에 영향을 받기 쉽다. 이를테면 전쟁과 같은 사회적 환경의 변동은 출산율과 혼인율이 가장 높은 20대 여성들에게 일시적으로 결혼이나 출산을 연기하게 함

으로써 전쟁기간 동안 그 연령 여성들의 혼인율과 출산율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리게 만든다. 전쟁 후에는 전쟁으로 결혼 혹은 출산을 연기 했던 여성들이 한꺼번에 혼인을 하거나 출산을 함으로써 출산율을 급증시킨다(Easterlin and Crimmins, 1985; de Walque, 2006; Heuveline and Poch, 2006).

이와 유사하게, 우리는 2000년대 초의 합계출산율을 외환위기가 우리나라 20대 혹은 30대 초 여성들에게 경제적 상황이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 결혼이나 출산을 연기하게 한 결과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동유럽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상황이 장기간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그대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심지어 더 떨어질 수 있다. 물론, 오늘날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의 원인이 경제적 상황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개인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요인 역시 초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혼인연령의 상승과 출산 변동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경제적 요인은 20대와 30대 초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의 변화와 청년실업 및 고용불안의 증가일 것이다.

1. 20대와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참여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출산율 간의 관계를 언급하는 경제학 이론들에 따르면(Becker, 1981),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의 증가는 자녀들에 대한 기회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출산율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Lehrer and Nerlove, 1986; Brewster and Rindfuss, 2000). 그러나 최근의 거시 자료의 분석에 근거한 연구들에 따르면(Billari and Kohler, 2004; Engelhardt, Kogel and Prskawetz, 2004), 1970년대까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출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유의미한 반면 1990년대에 들어서 그러한 유의미한 부정적 관계가 사라지거나 심지어는 긍정적 관계로 바뀌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높다고 할지라도, 만약 보육육아 복지가 잘되어 있고 또 일하는 어머니에게 우호적인 태도가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의 증가는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여성의 노동시장이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회적 조건이 형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는 출산율 저하로 연계되기 쉽다.

우리나라 가임기 여성(15-49세)의 경제활동참여율은 1980년 45.7%, 1985년 44.7% 수준에 머물렀으나 그 후 계속 증가하여 1990년 49.0%, 1995년 50.9%,

그리고 IMF를 맞은 해인 1997년 52.7%까지 증가하였다(<표 2> 참조). 외환위기로 경제침체가 초래된 직후인 1998년에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50.1%로 감소하였지만 다시 증가하여 2000년 이후에는 약 52-54% 수준이 도달하였다.

<표 2> 20대와 30대 초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추이

	1980	1985	1990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전체여성	45.7	44.4	49.0	50.9	52.7	50.1	50.6	52.0	53.0	53.8	53.6
20-24세	53.5	55.1	64.6	66.1	66.4	61.1	60.8	60.9	61.7	62.4	61.5
25-29세	32.0	35.9	42.6	47.9	53.8	51.5	52.1	55.7	57.5	59.4	60.5
30-34세	40.8	43.6	49.5	47.6	51.1	47.5	48.4	48.6	48.9	49.8	49.8

자료: 김태현·이삼식·김동희(2005:81)

혼인과 출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20대와 30대 초반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다. 20-2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1980년에 비교적 높은 수준인 53.5%이었지만,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외환위기 직전 1997년에 66.4%까지 상승하였다가 그 후 감소하여 61-62%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가장 괄목할 상승을 보여준 집단은 25-29세 여성들이다. 1980년대에는 30%대에 머물렀던 것이 1990년 42.6%, 1995년 47.9% 외환위기를 맞은 해인 1997년에 53.8%로 증가하였고, 외환위기 이후 약간 감소했다가 다시 계속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3년 약 60% 수준에 도달하였다. 20대 전반 여성들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한편 30-3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1980-1990년 약 10% 수준이 상승하였지만, 그 이후의 상승폭은 완만하다.

이러한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의 변동은 연령별 출산율과 직결된다. 20대 초반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의 증가는 20대 초반 여성의 출산율 하락을 이끌었다. 20-24세 출산율은 1985년 117.5에서 1990년 84.9, 1995년 61.5, 2000년 39.3, 그리고 2004년 20.4로 감소하였다. 또한 25-29세 출산율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비교적 높은 수준인 160선에 머물렀으나 그 후 계속 감소하여 2004년에는 104.6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30-34세 출산율은 1985년에 38.6이었지만 1990년 49.2, 1995년 70.8, 2000년 82.8로 증가하였고, 2004년에는 84.2로 나타났다. 20대 후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증가는 분명 여성의 혼인과 출산에 대한 혜택과 비용 계산에 틀림없이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러한 영향은 초혼연령과 출산연령을 상승시켰을 것이다(박경숙·김영혜, 2003)

2. 청년실업

전통적으로 결혼과 출산행위에 대한 연구는 그것의 결정요인으로 여성의 교육, 여성의 임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같은 여성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러한 연구에서 남성은 단지 부차적인 요소일 따름이다. 그러나 남성도 결혼과 혼인과 같은 가족형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Ahn and Mira, 2001; DeRose and Ezech, 2005).

우리나라 여성들은 흔히 남성의 경제적 능력—직업, 재산 월급과 같은—을 제일 중요한 결혼 배우자 조건으로 간주한다. 2004년 여성부 전국가족조사에서 여성들이 가장 중요한 배우자의 결혼조건으로 경제력과 직업(41.0%)을 꼽았고, 보건사회연구원의 미혼 여성의 결혼관 조사(김승권·김유경·박세경·이건우·조애저, 2004)에서도, 많은 남성들이 결혼하지 않고 있는 이유로 경제적 기반의 미비를 들고 있다. 반면 여성의 취업 여부는 남성의 결혼 여부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이수진, 2005). 비록 최근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강조되고 있지만, 남성이 가족의 경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인식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 자신의 배우자 및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성은 그러한 능력을 형성할 때까지 결혼을 연기하기 쉽고, 또 여성도 상대방 남성의 경제적 능력을 믿지 못하면 혼인을 파하거나 연기하기 쉽다.

다음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환위기 직전 4.9%였던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여 1998년 12월에 무려 14.5%를 기록, 그 후 감소하여 약 7%대에 머물고 있다. 전체 실업률도 청년 실업률과 마찬가지로 외환위기 이후 1998년 12월에 최고 정점에 도달했다가 그 후 감소하여 약 3%대에 머물고 있다. 비록 청년 실업률과 전체 실업률은 유사한 추세를 보였지만, 그 변화폭은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에 비해 상당히 크며,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를 상회하고 있다.

<표 3> 청년층 및 전체 실업률 추이

	1996	1997.10	1998.12	1999	2000	2001	2002	2003.5
청년층(%)	4.7	4.9	14.5	11.0	7.7	7.5	6.6	7.2
전체(%)	2.0	2.1	7.9	6.3	4.1	3.8	3.1	3.2

자료: 통계청(2002년 6월)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2003년 5월)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외환위기 이후 평생직장 개념에서 평생직업의 개념으로 바뀌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 결과 상용직의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상용직의 경우 1996년 총근로자의 35.6%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1998년에 32.3%, 1999년 29.8%로 약 5%이상 그 비율이 감소하였고, 2000년에도 계속 감소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임시직은 18.5%에서 21.1%로 3% 가까이 증가했고, 일용직도 8.7%에서 11.1%로 역시 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일용직과 임시직을 합한 불안정한 종사지위가 임금근로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당연히 증가했다. 1996년 43.2%, 1999년 51.6%, 2000년 52.4%로 약 9%나 증가했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2000년에 들어서도 불안정한 종사지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4분기 52.8%, 3/4분기 52.3%를 기록하고 있다(김영범, 2001).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일자리마저도 상용직보다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점점 더 대치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취직의 어려움과 고용불안은 젊은이, 특히 젊은 남성에게 결혼을 위한 경제적 능력을 형성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 젊은 남성이 어렵게 일자리를 구했다고 할 지라도 그 일자리의 고용불안으로 인해, 과거와 달리 직장 자체가 젊은 남성과 결혼상대 여성에게 경제적 능력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지 않는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젊은 남성들에게 결혼을 지연시키고(Oppenheimier, Kalmijn and Lin, 1997), 심지어 결혼 자체를 힘들게 할 수 있다. 2004년 남성의 평균 결혼 연령은 30.6세로 외환위기가 일어났던 해인 1997년의 28.6세보다 약 2세가 증가되었다. 반면 외환위기가 일어나기 7년 전인 1990년의 남자 평균 결혼 연령은 27.9세로, 외환위기가 일어나기 전 7년 동안은 약 0.7세가 증가하였다. 요컨대,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적 불안은 젊은 남성의 평균 결혼 연령을 그 이전보다 무려 3배 가까이 증가시켰다. 이러한 증가폭은 앞에서 언급한 여성의 증가폭보다 높다.

청년시절의 노동시장 불확실성과 불안한 경제적 전망은 부모의 집에 늦은 나이까지 머물게 하여 혼인 연령을 상승시키고 출산율을 하강시키기 쉽다(Billari and Kohler, 2004).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노동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진입이 결혼과 가구형성을 가속화시킨다는 연구가 있으며(Billari et al., 2002), 스페인에서 청년실업률이 높았던 시절인 1990년대 남성의 실업 기간이 길면 길수록 결혼과 첫째아 출산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경험적 연구도 있다(Ahn and Mira, 2001). 그 밖에도 젊은 남성들의 실업률(혹은 고용불안 상태)이 결혼과 출산의 연기를 통해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는 많다(Gauthier and

Hatzius, 1997; Macunovich, 1996; Ahn and Mira, 2001). 1990년대 청년 실업률이 비교적 높았던 남유럽의 세 나라(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는 초저출산율을 보인 반면, 청년 실업률이 낮았던 포르투갈은 비교적 출산율이 높았다.

최근 러시아, 동독과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도 청년실업과 출산 사이의 부정적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Eberstadt, 1994; Witte and Wagner, 1995).

그럼 이제부터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출산순위별 출산 행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자. 혼인 연령이 상승됨에 따라 첫째아, 둘째아, 그리고 셋째아를 출산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Kaplan-Meier 생존함수를 통해 분석해 보자.

III. 외환위기 전후 시기에 따른 출산순위별 생존함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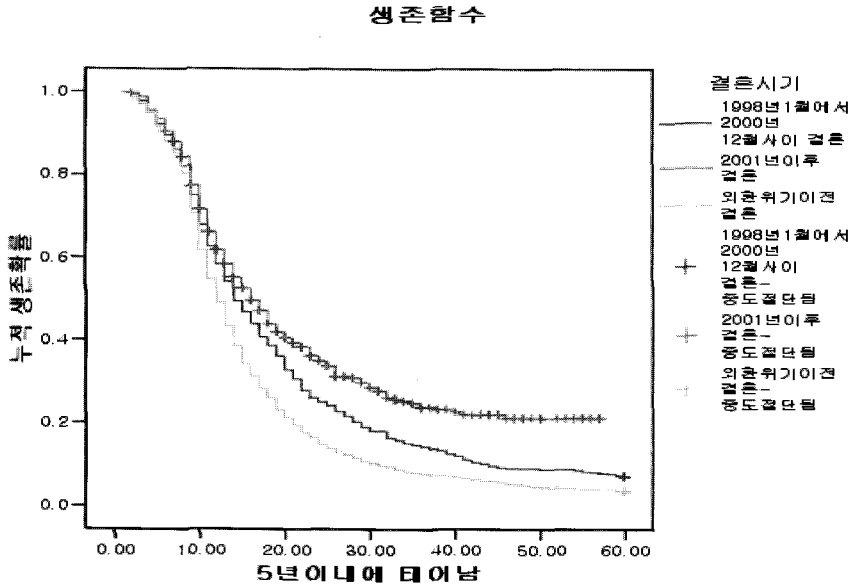
이 분석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5년 5월과 6월에 실시한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이다. 이 자료는 3,802명의 20-44세 기혼여성과 2,670명의 20-44세 미혼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분석대상을 기혼 여성으로 국한시켰으며, 또 분석에 부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64명의 응답자를 제외시킨 결과 3,738명의 기혼여성이 최종 분석대상이 되었다.

여기서는 각 출산순위별 생존함수를 외환위기 이전, 외환위기 직후부터 2000년 12월 사이, 그리고 2001년 이후의 세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를 두 시기로 구분한 근거는 2001년에 합계출산율이 초저출산 수준이라고 일컫는 1.3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다음의 <그림 1>은 결혼시기별에 따른 첫째아의 생존함수를 나타낸다. 외환위기 이전에 결혼한 2603명의 응답자 중 2507명(96%)이, 그리고 외환위기 직후부터 2000년 12월 사이에 결혼한 여성 542명 중 504명(93%)이 결혼 후 5년 이내에 첫째아를 출산하여 높은 출산율을 보여 준 반면, 2001년 이후에 결혼한 여성은 그에 비해 낮은 출산율을 보여주었다. 2001년 이후에 결혼한 여성 593명 중 370명(62%)만이 출산을 하였다. 우리는 2001년 이후에 결혼한 여성이 그 이전에 결혼한 여성보다 짧은 혼인 기간으로 인해 낮은 출산율을 보여준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Kaplan-Meier 함수는 이러한 우측 중도절단 관찰값들을 계

산에서 고려하기 때문에, 2001년도 이후에 결혼한 여성이 이전 세대보다 아이를 덜 원하는 추세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결혼시기별 첫째아 Kaplan-Meier 생존함수(n=37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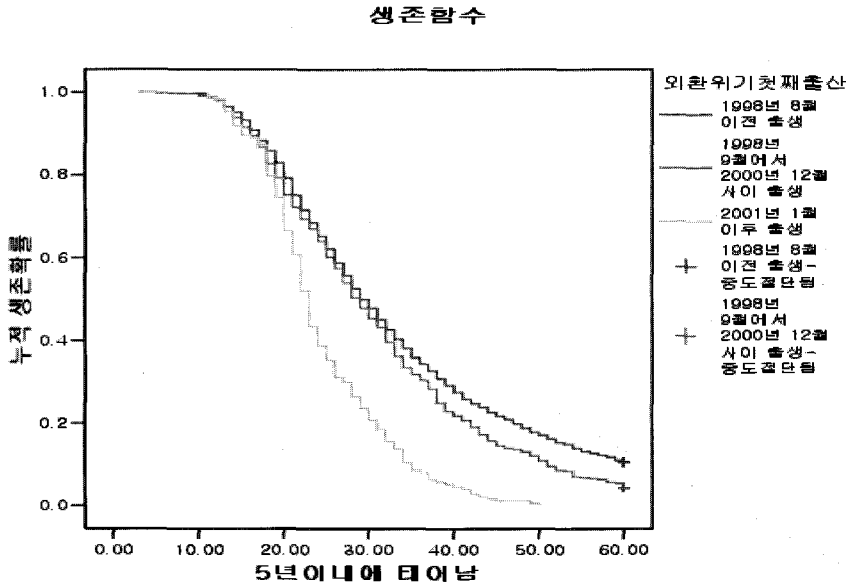


예상한 것과 같이, 외환위기 이전에 혼인한 여성이 외환위기 이후에 혼인한 여성보다 더 빨리 첫째아를 출산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또 출산율이 초저출산율 이하로 떨어진 2001년 이후 결혼한 여성이 외환위기 이전에 결혼한 여성은 물론 외환위기 이후부터 2000년 12월 사이에 결혼한 여성보다 첫째아를 덜 출산하는 경향도 보여준다. 이것은 외환위기 이전에 결혼한 여성보다 외환이후 이후 특히 2001년 이후에 결혼한 여성들에서 자녀를 원하지 않는 기혼 여성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

다음의 <그림 2>는 첫째아 출산시기별에 따른 둘째아에 대한 생존함수 도표를 나타낸다. 분석대상 총 2574명중 외환위기 이전에 첫째아를 출산한 기혼 여성은 1962명 중 1755명(89.4%)이, 외환위기 직후부터 2001년 이전에 첫째아를 출생한 기혼 여성은 439명 중 420명(95.7%)이, 2001년 이후에 첫째아를 출생한 173명 중 173명(100%)이 첫째아를 출생한지 5년 이내에 둘째아를 출산하였

다).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외환위기 이후 첫째아를 출산한 여성들이 둘째아를 낳을 가능성도 높고 또 그것도 짧은 간격 내에서 둘째아를 출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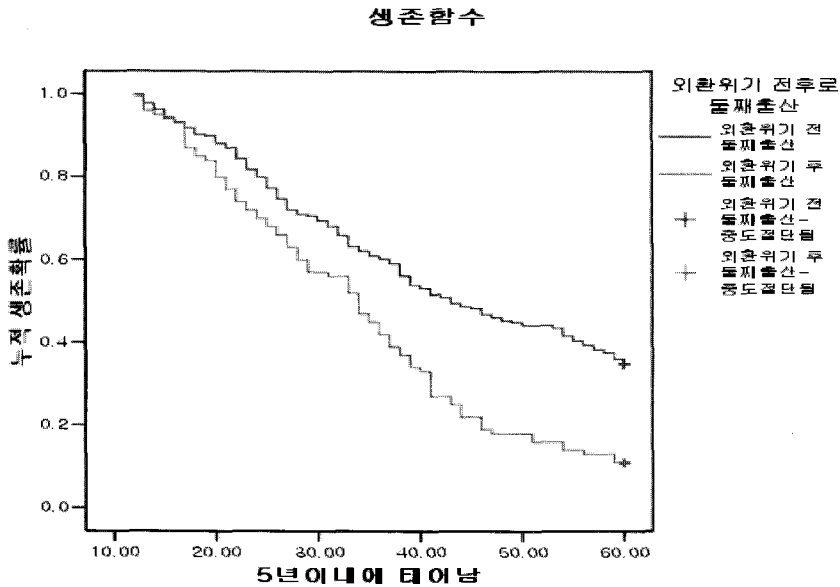
<그림 2> 첫째아 출산시기별 둘째아 Kaplan-Meier 생존함수(n=2574)



다음의 <그림 3>은 둘째아의 출산시기별에 따른 셋째에 대한 생존함수 도표를 나타낸다. 둘째아를 낳은 369명이 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외환위기 이전에 둘째아를 출산한 269명의 기혼 여성 중 175명(65%)이 둘째아를 출산한지 5년 이내에 셋째아를 출산하였고, 외환위기 이후에 둘째아를 출산한 100명의 기혼 여성 중 89명(89%)이 셋째아를 출산하였다. 둘째아 출산 분석과 유사하게,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외환위기 이후 여성들이 일단 두 명의 자녀를 낳으면 세 번째 아이를 낳을 확률이 더 높고(무려 24%) 또 그 출산을 더 빠른 기간 내에 마무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1) 이 글의 논평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2001년 이후에 첫째아를 출생한 여성 173명 모두가 5년 이내에 둘째아를 가졌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따라서 이는 다른 자료를 가지고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림 3> 둘째아 출산 시기별 셋째아 Kaplan-Meier 생존함수(n=369)



이상의 분석결과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제공한다. 하나는 외환위기 이전에 혼인한 여성에 비해 이후에 혼인한 여성, 특히 초저출산시대에 결혼한 여성의 경우 자녀를 원하지 않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사실 자녀의 필요성을 묻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 분석에서, 1991년에는 응답자의 90.3%가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그 후 급격히 줄어 2003년 자료에서는 단지 54.4%만이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응답했다(김승권, 2004). 다른 하나는 일단 첫아이를 출산하기만 하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둘째아와 셋째아를 보다 짧은 출산 간격 내에서 출산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외환위기 이후 출산 행태에 관해 우리나라 여성들이 자녀를 원하지 않는 유형의 여성들과 짧은 기간 내에 두 명 이상의 자녀 출산을 마무리하려는 유형의 여성들로 나누어졌음을 볼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특히 출산율이 초저출산 수준 이하로 떨어진 이후 우리나라 여성들은 그 이전 시대와 다른 형태의 출산 행위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부터는 그러한 출산 행태에 미치는 요인들이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해보자.

IV. 출산순위별 다변량 분석

1. 변수

이 연구의 로지스틱 다변량 분석에서 사용될 종속변수는 초혼(그리고 첫째아와 둘째아 출산)이후 5년 이내에 출산을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이다. 만약 61개월 이후 출산을 하였다면 출산을 안 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표 4> 출산순위별 분석 변수들에 대한 빈도표

(단위: %)

변수	첫째아 출산		둘째아 출산		셋째아 출산	
	외환 이전	외환 이후	외환이전	외환이후	전 기간	
해당 사례수	2603	1135	1962	612	369	
오년 내 출산	96.5	77.0	89.4	96.9	47.4	
교육 수준	4년제 대졸 미만	81.8	71.9	83.2	77.0	88.3
	4년제 대졸 이상	18.2	29.1	16.8	23.0	11.7
가구 소득	150만원 이하	19.6	21.1	18.2	22.4	23.0
	151-400	63.5	65.6	64.7	64.5	62.6
	401 이상	16.6	13.3	17.1	13.1	14.4
가구소유	61.6	44.4	63.5	53.4	59.1	
부인안정직업	6.3	8.1	6.5	7.7	4.1	
남편안정직업	28.4	17.0	29.0	23.0	24.9	
가치관	개인보다 가족	76.5	77.4	76.9	78.3	77.5
	바깥·안사람	66.4	62.7	66.2	66.8	69.4
	남편생계책임	59.7	52.7	61.2	52.0	58.8
	노후외로움	78.8	78.7	80.8	79.2	84.3
	노후 경제 보장	21.2	21.6	22.8	17.2	28.5
	가문계승	28.8	24.4	30.0	23.7	34.7
출산 관련 정책	사회문제 해결	24.1	18.4	24.7	17.5	22.8
	교육문제 해결	34.5	22.0	37.2	27.3	38.5
	가족여성복지해결	40.3	59.6	38.2	55.2	38.8
초혼 연령	23세 이하	44.7	18.6	48.4	22.4	53.4
	24-26세	40.9	37.5	40.2	45.3	35.0
	27세-29세	11.8	28.8	11.4	32.4	11.6
	30세 이상	2.5	15.1			
출생 코호트	1960-65년	45.4	2.1	49.6	77.0	46.3
	1966-70년	38.0	12.8	28.6		35.0
	1971-75년	16.4	50.6	25.4	23.0	18.7
	1976-85년		34.5			

로지스틱 다변량 분석에는 초혼연령, 출생코호트, 기혼여성의 교육수준, 가구소득, 가구소유, 부인안정직업, 남편안정직업, 그리고 가치관 변수로서, 개인보다 가족, 바깥사람 안사람, 남편생계 책임, 노후 외로움, 노후 경제적 보장, 가문계승 등이, 그리고 출산관련정책에 대한 변수들이 독립변수로 포함되었다.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고, 위의 <표 4>는 변수들에 대한 빈도표이다.

초혼연령: 이 변수는 기혼여성이 초혼한 연령을 말하며, 네 범주—만 23세 이하, 만 24-26세, 만 27-29세, 만 30세 이상—로 구성된다. 분석대상자 3738명 중 1,374명(36.8%)이 23세 이하, 1,491명(40%)이 24-25세, 633명(16.9%)이 27세-29세, 그리고 단지 235명(6.2%)이 30세 이상에 초혼을 하였다.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첫아이 출산(출산순위 0)에서 23세 이하에 결혼한 여성의 비율은 외환위기 이전에 이후보다 훨씬 더 높은 반면, 30세 이상에 결혼한 여성의 비율은 이전보다 이후가 훨씬 더 높았다. 둘째아(출산순위 1)와 셋째아(출산순위 2) 출산에서도 초혼 연령이 27세 이상인 여성 집단 비율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에 더 높았다.

출생코호트: 이것은 기혼 여성이 태어난 코호트를 말한다. 출생 코호트에 따라 출산에 대한 생각과 행위가 다를 수 있다. 이 변수는 네 범주로 구성되며, 첫 번째 범주는 1960-65년, 두 번째 범주는 1966-1970년, 세 번째 범주는 1971-1975년, 네 번째 범주는 1976-1985년 출생한 기혼여성들이 된다. 분석대상자의 32.2%(1,205명)가 1960-65년, 30.3%(1,134명)가 1966-70년, 26.2%(981명)가 1971-75년, 11%(413명)가 1976-1980년에 출생하였다. 외환위기 이후에 최근 출생 코호트가 더 많은 출산을 하였다.

교육수준: 이 변수는 기혼 여성의 교육 수준을 말하며, 두 범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범주에는 고등학교 중퇴이하, 첫 번째 범주는 고등학교 졸업 혹은 대학 중퇴, 전문대학과 같은 4년제 미만 대학 졸업, 두 번째 범주에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교육수준을 지닌 기혼여성들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출산율을 보인다고 가정된다. <표 4>에서 보면, 출산순위에 상관없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외환위기 이후에 대졸출신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전반적인 여성의 교육수준의 상승은 출산율의 저하와도 관련될 것이다.

가구소득: 이 변수는 응답한 기혼여성의 가구소득을 의미하여, 세 범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범주에는 150만원 이하, 두 번째 범주에는 151-400만원 이하, 세 번째 범주에는 401만원 이상의 가구소득을 가진 기혼여성들이 포함된다. 출산순위에 상관없이, 가장 낮은 소득 집단의 비율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에 약간 증가된 반면 가장 높은 소득 집단은 감소되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에

전반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현상을 간접적으로 암시한다.

가구소유: 이 변수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자가인지 아니면 전세 혹은 월세인지를 말한다.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이후에 가구소유 비율이 낮다.

부인안정직업: 이 변수는 응답한 기혼 여성이 결혼 초부터 조사시점인 2005년까지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기혼여성의 안정직업은 결혼 전부터 조사시점까지 계속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자 혹은 상용근로자이고 직종은 고위직 관리자 혹은 전문가이면서 월 소득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그렇게 정의한 배경은 흔히 경력(career) 여성은 다른 여성에 비해 출산보다 자신의 일에 더 신경을 쓴다고 가정되기 때문이다. 출산순위 0에서 안정직업의 여성은 외환위기 이후 결혼한 여성(8.1%)이 외환위기 이전 결혼한 여성(6.3%)보다 그 비율이 훨씬 높다. 출산순위 1에서 안정직업의 여성의 비율도 외환위기 이전 6.5%이고 이후 7.7%이다. 출산순위 2의 경우 안정직업 여성은 전체집단에서 불과 4.1%를 차지하였다. 전반적으로 보아 안정직업 여성의 비율은 외환위기 이후가 이전보다, 그리고 출산순위 2가 0과 1보다 낮았다.

남편안정직업: 이 변수는 응답한 기혼 여성의 남편이 가진 직업에 관한 것이다. 남편의 안정직업은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자 혹은 상용근로자이고 직종은 고위직 관리자 혹은 전문가이면서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부인안정직업과는 반대로, 외환위기 이후가 이전보다 남편안정직업 비율이 감소하였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안정직업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여성들이 남편안정직업의 상당부분을 차지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개인보다 가족: 이것은 결혼과 가족에 대한 견해 질문 항목 “개인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에 대해 ‘찬성’했는지를 구분하는 변수이다. 출산순위 0과 1에서 외환위기 이후가 이전보다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바깥사람 안사람: 이 변수는 가족 내 부부역할에 대한 태도 질문 항목 “남편은 직장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봄”에 대해 ‘찬성’으로 응답했는지를 구분한 것이다. 출산순위 0에서 외환위기 이전은 66.4% 이후에는 62.7%를 보여 찬성률이 줄었지만, 출산순위 1에서는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인다. 그리고 출산순위 2의 응답자들은 그 이전 응답자보다 더 보수적인 색채를 띤다.

남편생계 책임: 이 변수는 가족 내 부부역할에 대한 태도 질문 항목 “맞벌이 부부 경우에도 남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함”에 대해 찬성했는지를 말한다. 출산순위 1과 2에서 외환위기 이후가 이전에 비해 찬성비율이 훨씬 낮았다. 이

는 외환위기 이후 남편의 생계 책임자라는 인식이 매우 약해진 사실과 더불어 이런 사실이 외환위기 이후의 저출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노후 외로움: 이 변수는 자녀에 대한 태도 질문 항목 “자녀가 있는 사람은 노년에 덜 외로움”에 대한 ‘찬반’을 말한다. 첫째아 출산에서는 찬성비율이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둘째아 출산에서는 이전이 이후보다 약간 높았다. 그러나 출산순위 3의 여성들이 그 이전의 출산순위 여성들보다 더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노후 경제적 보장: 이것은 자녀에 대한 태도 질문 항목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 대한 찬반 변수이다. 외환위기 전후를 비교할 때, 출산순위 0에서는 찬성률이 별 차이가 없었으나, 출산순위 1에서는 외환위기 이후가 훨씬 낮은 비율을 보였다. 한명의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에 첫아이를 출산한 여성이 이전에 출산한 여성보다 자식의 노후 경제적 가치에 더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고 이것은 외환위기 이후에 둘째아를 가지려는 여성들의 비율을 하락시키는데 어느 정도 공헌을 하였을 것이다. 출산순위 2의 여성은 그 이전 출산순위의 여성들보다 높은 찬성률을 보인다. 비록 과거보다 자녀의 노후보장 가치는 많이 떨어졌지만, 두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노후에 자녀에게서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더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자식이 노후를 돌볼 수 있다는 믿음이 한국의 출산율 상승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지지하는 경험적 증거로 간주될 수 있다.

가문계승: 이 변수는 자녀에 대한 태도 질문 항목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가 필요”한지에 관한 것이다. 출산순위 0과 1에서 외환위기 이후가 이전보다 훨씬 낮은 비율을 보인다. 반면 출산진도 2의 여성들은 이전의 여성들보다 이 변수에 훨씬 더 높은 찬성률을 보인다.

가족주의에 관련된 가치관 변수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개인보다 가족’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의 찬성률은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이후에 떨어졌고 또 출산순위 2의 여성들이 출산순위 0과 1의 여성들보다 높은 찬성률을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외환위기 이후에 출산을 장려하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미약해졌고 이것은 외환위기 이후의 출산 하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음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게다가 출산순위 2의 여성들이 그 이전의 출산순위 여성들보다 가족주의 가치관 변수들에 더 높은 찬성률을 보이는 분석 결과는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족주의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출산을

상승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유효한 요소라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출산관련정책: 이 변수는 가족 여성 복지 문제 해결, 교육 문제 해결, 사회문제 해결 등 세 범주로 구성된다.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르기 위한 바람직한 사회적 여건에 대한 질문항목에서 첫 번째 순위로 '양성평등 구현',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확립', '한부모 가족에 대한 편견 해소', '안전한 자녀 양육 환경 조성', '질 높은 보육 육아지원 시설 확충' 혹은 '복지수준 향상'으로 응답한 사람은 '가족 여성 복지 문제 해결' 범주로, '공교육 강화'나 '사교육비 경감'으로 응답한 사람은 '교육문제 해결' 범주로, '학벌 위주 사회 문화 타파', '경기 활성화(고용안정)' 혹은 '지나치게 치열한 경제적 사회 지양'으로 응답한 사람은 '사회문제 해결' 범주로 포함시켰다.

외환위기와 이후를 비교해 보면, 출산순위 0에서 외환위기 이전에 결혼한 여성이 출산관련정책으로 사회문제 관련 정책에 24.1%, 교육문제 해결 정책에 35.5%, 가족 여성 복지 해결 정책에 40.3%가 응답한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 결혼한 여성은 출산관련정책으로 사회문제 관련 정책에 18.4%가, 교육문제 해결 정책에 22.0%가, 가족 여성 복지 해결 정책에 59.6%가 응답하였다. 출산순위 1에서, 외환위기 이전에 첫출산을 한 여성은 출산관련정책으로 사회문제 관련 정책에 24.7%, 교육문제 해결 정책에 37.5%, 가족 여성 복지 해결 정책에 38.1%가 응답한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 첫출산을 한 여성은 출산관련정책으로 사회문제 관련 정책에 17.5%가, 교육문제 해결 정책에 27.3%가, 가족 여성 복지 해결 정책에 55.2%가 응답하였다. 외환위기 이후에 결혼을 하거나 첫아이를 출산한 여성은 그 이전에 그런 행위를 한 여성보다 출산관련정책으로 가족 여성 복지 해결 정책을 더 강조하였다. 이것은 아마 전자의 여성이 후자의 여성보다 젊고, 보다 많이 일을 하는 세대 간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첫째 출산에 대한 다변량 분석

다음의 <표 5>는 결혼시기를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첫째아 출산 행위에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한 결과이다.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첫째아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매우 상이했다. 외환위기 이전 혼인한 여성들의 분석 결과에서는 출산관련 정책의 교육문제 해결을 제외하고는 결혼 후 5년 이내 첫째아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없었다. 이것은 외환위기 이전에 결혼한 여성에게 있어 첫째아 출산은 거의 보편적인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회 인구학적 변수의 특성에 따른 유의미한 첫째아 출산 행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 첫째아 출산 행위 분석에서는, 부인의 안정직업, 남편의 안정직업, 노후의 경제적 보장, 그리고 초혼연령과 출생코호트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직업의 기혼 여성은 다른 기혼 여성에 비해 낮은 첫째아 출산율을 보이는 반면, 월소득 300만원 이상인 안정 직업을 가진 남편을 둔 기혼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높은 첫째아 출산율을 나타냈다.

여성의 안정 직업은 출산에 부(-)적 영향을, 그리고 남성의 안정 직업은 정(+)적 영향을 보여 준다. 이 발견은 오늘날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는 여성부의 여성우호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는 매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남성의 경제력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여성이 혼인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첫아이의 출산을 촉진하는 요소라는 것을 분석 결과는 보여준다. 특히 혼외출산율이 매우 낮은 우리나라에서, 남성의 경제력은 출산율에 더욱 더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젊은 남성의 경제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결혼도 힘들고, 또 결혼을 했더라도 부인에게 출산을 요구하기도 어렵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첫아이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는 변수가 없는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노후의 경제적 보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전통적인 가치관에 대한 개인적 차이가 첫아이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뜻한다. 사실 한 사회 내의 성원들이 전통적인 가치관을 동일하게 공유할수록 그 가치관에 대한 개인들 간의 차이가 개인의 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은 반면, 성원들이 그 가치관을 이질적으로 공유할수록 개인들 간의 차이가 개인의 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Entwisle et al., 1989). 외환위기 이후 증가된 개인주의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전통적 가치관을 보다 이질적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

초혼연령이 30세 이상인 여성은 초혼 연령이 30세 미만인 여성들보다 낮은 첫째아 출산율을 보였고, 1976-1985년 사이에 태어난 기혼 여성들이 이전의 코호트 여성들보다 낮은 첫째아 출산율을 보였다. 이는 보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높은 만혼의 여성들과 최근 출생코호트의 여성들이 자녀의 필요성을 덜 느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5> 첫출산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

(단위: %)

변수	외환위기 이전	외환위기 이후
상수	3.48***	-2.57***
교육수준	4년제 대졸 미만	0.26
	4년제 대졸 이상	—
가구소득	150만원 이하	-0.08
	151-400	0.29
	401 이상	—
가구소유	-0.20	-0.21
부인안정직업	0.28	-0.61*
남편안정직업	0.25	0.91**
가치관	개인보다 가족	-0.23
	바깥·안사람	-0.18
	남편생계책임	-0.11
	노후외로움	-0.29
	노후 경제 보장	-0.39
	가문계승	-0.28
출산관련정책	사회문제 해결	0.19
	교육문제 해결	0.42*
	가족여성복지 해결	—
초혼연령	23세 이하	0.44
	24-26세	0.61
	27세-29세	0.70
	30세 이상	—
출생코호트	1960-65년	-0.55
	1966-70년	-0.31
	1971-75년	—
	1976-85년	—
첫째아 출산 부인 수(명)와 비율(%)	2502 (96.3)	874 (77.0)
총사례수(명)	2598	1135

주: 1) — 준거집단

2) * $p < .1$, ** $p < .05$, *** $p < .01$

3. 둘째 출산에 대한 다변량 분석

다음의 <표 6>은 둘째아 출산에 대한 다변량 로지스틱 분석 결과이다. 첫째아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첫째아 출산시기를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달랐다. 외환위기 이전에 첫째아를 둔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는 가치관 변수인 가문계승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의 둘째아 출산 행위분석에서 이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문계승이 둘째아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첫째아 자녀가 가문을 계승할 아들이 아닐 때이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가문계승이 둘째아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남아선호가 외환위기 이후에는 출산에 더 이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6> 둘째 출산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

(단위: %)

변수		외환위기 이전	외환위기 이후
상수		1.41***	5.01***
교육수준	4년제 대학 졸업 미만	0.23	1.33**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	—
가구소득	150만원 이하	-0.20	-0.12
	151만원-400만원	0.26	-0.72
	401만원 이상	—	—
가구소유		-0.23	0.42
부인안정직업		0.40	-0.17
남편안정직업		-0.10	-0.91
가치관	개인보다 가족	-0.20	0.22
	바깥사람 안사람	0.25	1.06
	남편생계책임	-0.07	0.82
	노후의로움	-0.15	-0.06
	노후 경제적 보장	-0.13	0.12
출산관련정책	가문계승	0.41**	-1.00
	사회문제 해결	0.09	-0.64
	교육문제 해결	0.01	-0.08
초혼연령	가족여성복지 해결	—	—
	23세 이하에 결혼	-0.05	-2.73***
	24-26세 사이에 결혼	0.18	-0.30
출생코호트	27세 이상에 결혼	—	—
	1960-65년 출생	-0.02	-2.59***
	1966-1970년 사이 출생	0.03	
1971-1985년 사이 출생		—	—
첫째아 출산 부인 수(명)와 비율(%)		1755 (89.4)	593 (96.9)
총 사례 수(명)		1962	612

주: 1) — 준거집단
 2) *p<.1, **p<.05, ***p<.01

외환위기 이후 분석에서는 부인의 교육수준, 23세 이하에 결혼, 그리고 1960-1970년 출생 코호트가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주었다. 교육 수준이 4년제 대졸 이상인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낮은 둘째아 출산율을 보였다. 특히 외환위기 이전과 달리, 초혼연령이 27세 이상인 여성이 초혼 연령이 23세 이하인 여성들보다 첫째아 출산 이후 5년 이내의 높은 둘째아 출산율을 보였다.

이는 늦은 연령에 결혼을 했지만 최소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원하는 기혼 여성들이 가임력이 떨어지는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짧은 연령 간격에서 두 번째 아이의 출산을 마치려는 경향이 최근 들어 두드러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경험적 증거라고 간주된다. 게다가 최근 출생 코호트의 여성들이 이전 코호트의 여성들보다 높은 둘째아 출산율을 보였다. 이는 앞의 생존분석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최근 코호트 여성들이 과거 코호트 여성들 보다 짧은 연령 간격에서 첫째아와 둘째아 출산을 마무리하려는 경향을 말해준다.

4. 셋째 출산에 대한 다변량 분석

셋째아 출산 분석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둘째아를 출생한 기혼 여성의 수가 너무 적어 전기간 분석을 하였다. 먼저 둘째아를 출산한 시기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의 다변량 분석에 포함된 모든 변수들을 넣은 상태에서 셋째아에 대한 다변량 로지스틱 분석을 행하였다. 그 결과 <표 7>에서 보는바와 같이, 초혼 연령과 출생코호트 변수들이 셋째아 출산 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하지만 둘째아를 출산한 시기를 통제한 상태에서 다변량 로지스틱 분석을 행했을 때는, 23세 이하에 결혼과 둘째아 출생시기 만이 셋째아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세 이하에 결혼한 여성은 27세 이상에 결혼한 여성들보다 둘째아를 출산 후 5년 이내에 셋째아를 출생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 앞의 생존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외환위기 이후에 둘째아를 출생한 여성이 이전에 출생한 여성들보다 셋째아를 더 빠른 기간 내에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아 출산과 마찬가지로, 셋째아 출산에서도 늦게 결혼한 여성이 일찍 결혼 한 여성에 비해 보다 짧은 출산 간격으로 자신의 출산을 마무리하려는 경향을 보여 준다.

<표 7> 셋째 출산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

(단위: %)

변수		전기간	전기간(둘째아 출산 시점 통제)
상수		3.85***	
교육수준	4년제 대학 졸업 미만	0.30	-0.29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	—
가구소득	150만원 이하	0.04	0.03
	151만원-400만원	0.27	0.27
	401만원 이상	—	—
가구소유		0.07	0.05
부인안정직업		-1.00	-0.92
남편안정직업		0.29	0.23
가치관	개인보다 가족	-0.13	-0.19
	바깥사람 안사람	-0.25	-0.19
	남편생계책임	0.17	0.15
	노후의로움	-0.15	-0.12
	노후 경제적 보장	0.23	0.24
가문계승		0.04	0.07
출산관련정책	사회문제 해결	-0.05	0.02
	교육문제 해결	0.02	0.05
	가족여성복지 해결	—	—
초혼연령	23세 이하에 결혼	-1.56***	-1.13**
	24-26세 사이에 결혼	-1.08**	-0.83
	27세 이상에 결혼	—	—
출생코호트	1960-65년 출생	-1.19***	-0.46
	1966-1970년 사이 출생	-1.11***	-0.53
	1971-1985년 사이 출생	—	—
외환위기 이후 둘째 출산			1.03**
첫째아 출산 부인 수(명)와 비율(%)		264 (71.5)	
총 사례 수(명)		369	

주: 1) — 준거집단

2) *p<.1, **p<.05, ***p<.01

V. 함의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출산 행위 특히 출산순위별 출산간격의 변화를 생존함수를 통해 검토한 뒤, 그러한 출산간격에서의 출산에 미치는 요인들을 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밝혔다. 이 연구의 기본 가정은 외환위기의 사회경제적 변동은 결혼 혹은 출산과 같은 개인적인 행위와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개인들은 다른 방식으로 출산 행위를 행하고 그러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가정은 본

연구의 분석에서 입증되었고,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존분석 결과는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출산순위에 따른 출산 간격들이 변했음을 보여준다. 첫째아 출산에서 외환위기 이후 특히 2000년 이후에 결혼한 여성은 그 이전에 결혼한 여성에 비해 첫째아 출산을 덜 하려는 경향이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약 96%의 여성이 결혼 5년 이내에 첫째아를 출산하였지만 2000년 이후 결혼한 여성은 약 77%만이 첫째아를 출산하였다. 이는 기혼 여성의 자녀 필요성이 초저출산 시대인 2000년 이후에 약해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둘째아 출산에서는 첫째아와 달리, 외환위기 이후에 첫째아를 출산한 여성이 이전에 출산한 여성에 비해 둘째아를 더 빠른 기간에 출산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셋째아 출산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외환위기 이후에 결혼한 여성들은 그 이전에 결혼한 여성들보다 혼인 연령이 높기 때문에 가임력이 떨어지는 35세 이전까지 출산을 마무리하려 할 것이고, 그 결과 이전 여성들에 비해 보다 짧은 출산 간격 내에서 출산 행위를 완료하는 경향이 있다. 만일 앞으로 결혼 연령이 현재보다 더 높아진다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보다 좁은 연령 간격 내에서 첫째아와 둘째아를 출산하게 될 것이고, 또 연령에 따른 가임력의 하강으로 셋째아 이상을 출산하는 여성의 수는 점점 더 줄게 될 것이다.

둘째, 다변량 분석은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첫째아 출산에서, 외환위기 이전에 결혼한 여성의 첫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오직 출산관련 정책의 교육문제뿐이었다. 이는 외환위기 이전 기혼 여성들은 첫째아 출산은 거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이 강하게 보편적으로 퍼져 있어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가치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 결혼한 여성들에 대한 분석에서는 부인과 남편의 직업, 자녀로부터 노후 경제적 보장 기대, 그리고 초혼연령과 출생코호트에 따라 첫째아를 5년 이내에 출산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외환위기 이후 많은 기혼 여성들에게 첫째아 출산이 더 이상 보편적 규범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짙은 초혼 연령이 늦은 여성과 최근 코호트의 기혼 여성들이 첫째아를 출산할 확률이 낮았다. 남편의 직장과 부인의 직장은 반대 방향으로 첫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인의 직업보다는 남편의 직업이 더 강하게 첫째아 출산에 영향을 미쳤다. 남편 직업의 안정성은 부인 직업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고 첫아이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첫출산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출산 장려 정책에서 젊은 여성의 직업

보다 젊은 남성의 직업이 더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자녀에게서 노후보장을 기대하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첫째아 출산율이 높았다. 가치관에 대한 개인적 차이들이 외환위기 이후 첫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둘째아 출산에 대한 다변량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외환위기 이전에 첫째아를 출산한 여성의 둘째아 출산에는 가문계승 변수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 첫째아를 출산한 여성의 둘째아 출산에는 부인의 교육수준, 초혼연령 그리고 출생코호트가 영향을 미쳤다. 외환위기 이후 가문계승변수가 둘째아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외환위기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남아선호가 더 이상 출산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외환위기 이후 분석에서 27세 이후에 결혼한 여성은 23세 이전에 결혼한 여성보다 빠른 간격 내에 둘째아를 출산하는 경향을 보였고, 또 최근 코호트의 기혼여성이 이전의 기혼 여성보다 첫째아를 출산한지 5년 이내에 더 많이 둘째아를 출산하는 경향을 보였다. 생존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높아진 결혼 연령의 탓으로 더 짧은 연령간격 내에서 출산을 마무리하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셋째아 출산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보여준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특히 2000년대 이르러 외환위기 이전보다 첫째아를 덜 가지려는 경향과 만혼으로 인해 보다 짧은 기간 내에 출산을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두 가지 중요한 발견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첫째, 오늘날 우리나라의 출산장려 정책은 무엇보다도 첫째아의 출산율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의 혼외출산율은 매우 낮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첫째아의 출산율을 높이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젊은 사람들의 결혼 장려 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서 결혼의 필요성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높게 나온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의 미혼자 자료에서도, 결혼에 대해 남성은 71.4%가 여성은 49.1%가 하는 편이 좋다고 응답했다. 여성보다 남성이 결혼에 대한 욕구가 높다. 남성이 결혼하는데 가장 중요시되는 조건은 경제적 능력이다. 여성 역시 남성의 결혼 조건으로 경제적 능력을 가장 중요시한다. 더불어, 첫째아에 대한 다변량 분석은 남편 안정 직업은 부인 안정 직업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고 남을 정도로 첫째아 출산에 매우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우리 사회의 출산율을 상승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결혼 적령기의 남성들의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요사

이 가장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젊은 남성의 청년 실업의 해소야말로 저출산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일본에서 만 50세까지 독신으로 살 비율은 남자는 약 25%, 여자는 19%임에도 불구하고(Retherford and Ogawa, 2005),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합계출산율을 보여준다. 이것은 일본보다 우리나라의 유배우자 출산율이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계속 연기하거나 심지어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증가된다면, 미래의 출산율이 오늘날의 출산율보다 더 낮아진다는 사실은 자명해 보인다. 그러므로 젊은이의 결혼 장려 정책은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만혼으로 인해 여성들이 결혼 후 출산을 완료하는 기간이 줄어들고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출산하기 때문에, 그 출산 기간을 찾아 그에 적합한 출산장려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기간은 대략 30대 전반으로 추측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미래의 출산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출산유무 자체보다는 출산간격에 대한 연구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결혼 연령의 상승,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동은 자녀를 원하는 많은 기혼 여성들에게 임신을 연기하게 한다. 이러한 연기는 많은 경우 가임력이 떨어지는 35세 이후까지 연기되기 쉽다. 따라서 출산 유무를 종속 변수로 삼는 경험적 연구대신에, 출산 간격을 종속변수로 하여 이러한 연기를 분석할 수 있는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저출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개인의 출산 행위는 경제적 조건뿐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전환으로도 바뀔 수 있다. 청년실업의 해소 못지않게, 자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인식 전환의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출산이 장려될 수 있다. 비록 다변량 분석은 외환위기 이후 첫째아 출산이 더 이상 보편적인 규범이 아니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빈도표 분석은 보다 많은 자녀를 가진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노후보장이나 가문계승과 같은 전통적 사회에서 가졌던 자녀의 가치를 더 원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 전통적 사회에서 가졌던 자녀의 가치가 오늘날에는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게서 노후보장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소한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녀의 가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말하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 출산 장려 정책에 필요한 이데올로기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승권 (2004) “최근 한국사회의 출산을 변화원인과 향후전망” 《한국인구학》 27(2):1-32.
- 김승권·김유경·박세경·이건우·조애저 (2004)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범 (2001) “경제위기 이후 사회정책의 변화” 《한국사회학》 35(1):31-58.
- 김태현·이삼식·김동희 (2005) 《출산력 저하의 원인: 출산행태 및 출산력 차이》 미래위총서 10.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연구회 보건복지부.
- 박경숙·김영혜 (2003) “한국 여성의 생애 유형-저출산과 M자형 취업곡선에 서의 함의” 《한국인구학》 26(2):63-90.
- 은기수 (2001) “결혼 연령 및 결혼 코호트와 출산간격의 관계: 최근의 낮은 출산력 수준에 미치는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5(6):105-139.
- 이수진 (2005) “젠더관점에서 본 결혼선택의 규정요인” 《노동정책연구》 5(1):131-156.
- 전광희 (2006) “무자녀에서 첫째자녀로의 이행과정” 《인구와 사회》 1(1):1-34.
- 최경수 (2004) “출산을 하라 추이에 대한 분석” 《한국인구학》 27(2):35-60.
- Ahn, Namkee and Pedro Mira (2001) “Job bust, baby bust: Evidence from Spanish Data”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4(3):505-522.
- Becker, Gary. S. (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Billari, Francesco C., M. Castiglioni, T. Castro Martin, F. Michielin, and F. Ongaro (2002) “Household and Union Formation in a Mediterranean fashion: Italy and Spain” in E. Klijzing and M. Corjin (eds.) *Fertility and Partnership in Europe: Findings and Lessons from Comparative Research*, Vol. 2. Genova and New York: United Nations.
- Billari, Francesco C. and Hans-Peter Kohler (2004) “Patterns of Low and Lowest-Low Fertility Europe” *Population Studies* 58(2):161-176.
- Bongaarts, John and Griffith Feeney (1998) “On the Quantum and Tempo of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4(2):271-291.

- Bongaarts, John and Susan. C. Watkins (1996) "Social Interactions and Contemporary Fertility Transition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2(4):639-682.
- Brewster, Karin L. and Ronald R. Rindfuss (2000) "Fertility and women's employment in industrialized na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271-296.
- DeRose, Laurie. F. and Alex. C. Ezeh. (2005) "Men's influence on the onset and progress of fertility decline in Ghana, 1988-1998" *Population Studies* 59(2):197-210.
- de Walque, Damien (2006) "The Socio-Demography Legacy of the Khmer Rouge Period in Cambodia" *Population Studies* 60(2):223-232.
- Easterlin, Richard. A. and Eileen M. Crimmins (1985) *The Fertility Revolution: A Supply-Demand Analysi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berstadt, Nicholas (1994) "Demographic Shocks after Communism: Eastern Germany, 1989-1993"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0(1):137-152.
- Engelhardt, Henriette, Tomas Kogel and Alexia Prsawetz (2004) "Fertility and Women's Employment Reconsidered: A Macro-Level Time-Series Analysis for Developed Countries, 1960-2000" *Population Studies* 58(1):109-120.
- Entwisle, Barbara. et al. (1989) "Village as Contexts for Comparative Behavior in Rural Egyp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1019-1034.
- Gauthier, Anne H. and Jan Hatzius (1997) "Family Benefits and Fertility: an Econometric Analysis" *Population Studies* 51:295-306.
- Heuveline, Patrick and Bunnak Poch (2006) "Do Marriages Forget Their Past? Marital Stability in Post-Khmer Rouge Cambodia" *Demography* 43(1):99-126.
- Kohler, Hans-Peter (2001) *Fertility and Social Interactions: An Economic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 Kohler, Hans-Peter, Francesco C. Billari and Jose Antonio Ortega (2002) "The Emergence of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During the 1990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8(4):641-680.

- Lehrer, Evelyn and Marc Nerlove (1986) "Female labour force behavior and fertility in the United Stat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12:181-204.
- Macunovich, Diane. J. (1996) "Relative Income and Price of Time: Exploring Their Effects on US Fertility and Female Labor Participa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2 (supplement):223-257.
- Oppenheimer, Valerie K., Matthijs Kalmijn and Nelson Lin (1997) "Men's Career Development and Marriage Timing During a Period of Rising Inequality" *Demography* 34(3):311-330.
- Ranjan, Priya. 1999. "Fertility Behavior under Income Uncertainty"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15(1):25-43.
- Retherford, Robert. D. and Naohiro Ogawa (2005) "Japan's Baby Bust: Causes, Implications, and Policy Responses" *Population and Health Series* No. 118. East-West Center Working Papers.
- Witte, James C. and Gret G. Wagner (1995) "Declining Fertility in East Germany after Unification: A Demographic Response to Socioeconomic Chang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1(2):387-397.

Economic Crisis and the Lowest-Low Fertility

Sung Yong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o change the fertility behavior at each parity after/before the economic crisis, and to find its significant determinants. The study assumes that because the socioeconomic change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individual's fertility behavior, the individual's fertility behaviors and the determinants affecting fertility at each parity may change with economic crisis. Such assumption has been proven in this study. After the economic crisis, Korean fertility behavior at each parity has changed. The proportion of women having no child has increased. However, women who want to have a second child or a third one are more likely to do so within shorter period after marriage. The rectangularization of fertility has appeared after the economic crisis, because women married at later ages tends to finish their child bearing within the short period, especially before age 35.

Based on the multiple variable analysis, the determinants affecting the fertility behavior have changed after the economic crisis. Interestingly, the men's safety job have the positive effects on the first childbearing while the women's safety careers have the negative effects on it, after the economic crisis. Before the economic crisis, both do no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first childbearing. This findings point out the limitation of women career favor policy, which purpose to raise the fertility rates by making good environments for women having children to work comfortably without the anxiety of child care.

Key Words: economic crisis, the lowest-low fertility, rectangularization of fertility